

대학생의 진로장애에서 심리적 진로장애와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의 관계*

김 수 현[†]

충북대학교

수년간 지속되는 극심한 취업난은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소재 대학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었으나 지방소재 대학생은 상대적인 결핍감과 현실적인 장벽을 크게 느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취업에 앞서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장애감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장애검사와는 달리 장애내용을 심리적인 것과 객관적/환경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고자 했다. 개방식 질문을 통해 장애문항들을 추출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심리적장애 문항은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객관적/환경적여건 문항에 대해서는 주성분분석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각각 4개 요인 17개 문항과 5개 요인 13개 문항으로 검사가 구성되었다. 지방소재 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이 느끼는 장애점수의 비교에서 예상했던바와 같이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소재 대학생보다 진로장애를 더 크게 느끼고 특히 심리적요인 전부에서 그랬으며 '자신감부족과 성격' 요인에서 차이가 컸다. 환경적 여건에서는 '나이나 신체조건', '경비와 집안사정', '부모와 주변인 문제' 등은 차이가 없고 '취업기반이나 학벌의 부족'에서 지방소재 대학생이 장애감을 더 높게 느낀다. 그리고 환경적 여건이 심리적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심리적 진로장애 요인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적 여건들은 심리적 진로장애 1(직업정보부족), 2(자기진로 이해부족), 3(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진로장애 4(취업의 현실여건)에는 취업기반부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의 영향 양상이 대학 간에 다를 것이 시사되어 경로모형을 구성한 후,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적 진로여건 1(취업기반부족)이 심리적 진로장애 3(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진로여건 2(학벌과 전공)가 심리적 진로장애 2(자기진로 이해부족)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진로여건 4(경비와 집안사정)가 심리적 진로장애 3(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학에 따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심리적 진로장애검사 점수와 진로자기효능감, 일반적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도 검사 점수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본연구의 장애검사와 기존 검사의 차이점, 심리적 장애요인의 중요성, 환경적여건의 심리적장애에 대한 영향력, 지방소재 대학생의 진로상담에서 고려점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심리적 진로장애,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

* 본 논문은 2006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Tel : 043) 261-3552, E-mail: shkims@chungbuk.ac.kr

최근 수년간 지속되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모든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졸업후 취업률을 높이고 취업과정을 돕기 위해 취업센터의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대학생 취업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청년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경력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빠르게 확산되며, 고용의 질이 악화되어 청년층 일자리의 질도 저하하였다. 또한 급속한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김봉환, 2004).

이와같이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대학생들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걱정거리 중의 하나이고 상담신청자 중 상당수가 진로문제를 호소한다는 사실(김은영, 2002; 광운대, 2000)을 볼 때 올바른 진로방향 설정과 취업지도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진로지도와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나 방법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진로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일이다. Gordon(1981)은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온 변인들을 열거했는데 흥미, 가치, 능력, 욕구, 성숙도, 의존성, 귀인, 성적, 부모의 수입 등 매우 다양하다. 지금까지 진로상담 연구들은 주로 심리적 변인들과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 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진로결정과정에서 개인-심리적 변인의 역할만을 강조하면 개인이 속한 사회적 제약이나 환경의 영향을 간과할 수 있다. Astin(1984)은 사회적 변인인 성역할사회화와 기회구조는 심리적 변인인 동기과 기대를 매개로하여 개인에게 다르게 지각되며 이러한 지각의 차이로 인해 개인의 진

로선택이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Vonderacek, Lerner와 Schulenberg(1986) 등도 유기체에 가해지는 환경의 영향력은 개인이 장애를 지각하는 정도와 장애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근에는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환경적 요인이 진로결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진로장벽 변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손은령, 김계현, 2002; Lent, Brown, & Hackett, 2000; Mcwhitter, 1997).

Swanson과 Woitke(1997)는 지각된 장애요인(perceived barriers)을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들’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적요인 두가지를 다 포함시켰다. 대부분 진로장애요인 연구자들은 이러한 총괄적인 정의를 무조건 받아들였고(Lent, Brown, & Hackett, 2000),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내적요인과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환경적인 조건들을 개념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온 문제가 있다(Mcwhirter, 1997). 반면 또 다른 진로발달 연구자들은 객관적으로 정의된 장애와는 반대되는 것처럼 지각된 장애의 효과를 연구하기도 했다(Swanson & Woitke, 1997). 때로는 진로장애는 진로에서의 효능감과 혼동되어 쓰이고 대처효능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은경(2001)은 개인이 진로에 대한 장애요인을 지각하는 것을 진로장애라고 한다면 앞으로 닥칠 장애요인에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는 자기효능감이 라고 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장애의 구성개념이나 측정 방법과도 연관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진로장애연구는 질적인 인터뷰, 특정한 장애발

생의 종단적 연구,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방법을 취했다. 연구 초기에는 지각되는 진로장애 내용을 분류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Harmon, 1977) 문헌조사를 하기도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진로장애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Luzzo, 1996; Swanson & Tokar, 1991) 점차 질문지 형식의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다(Mcwhitter, Hackett, & Bandalos, 1998; Tien, 1998). 장애측정도구는 특정한 형식과 관계없이 명백한 안면타당도를 가진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지각 측정도구는 단순히 특정한 장애의 존재유무를 넘어서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있으므로 장애평가도구는 두 가지 개념적으로 분명한 구조인, 장애지각과 대처효능감과 혼합될 수 있다. 주로 장애에 대한 지각은 개인에게 이롭지 않다고 믿는 어떤 조건, 혹은 이러한 조건이 자신의 진로진전을 방해할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문는데 이는 특히 대처효능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하면 장애라고 정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Lent, Brown, & Hackett, 2000). 이처럼 장애의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각각의 독립적인 효과와 상호호혜적 측면을 어떻게 밝혀내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요약하면 외적, 환경적 장애는 분류하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장애의 소재가 개인내 또는 환경 양쪽에 다 존재 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변별의 어려움 때문에 서로 다른 요인들이 진로를 방해하는 경로파악을 모호하게 만든다(Swanson & Woitke, 1997) 그러나 개인과 맥락적 변인이 지속적이고 호혜적 상호작용을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과 맥락변인이 한덩어리

로 영향을 미치는 단일한 원인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Lent, Brown, & Hackett, 1994, 2000). 따라서 사회인지이론에서는 두가지 요인이 진로발달과정에서 상호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지만 개인내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을 구분해서 각각의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Lent, Brown과 Hackett (2000)은 진로발달을 막는 개인요인과 맥락요인을 구분함으로써 오는 몇 가지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이점을 들고 있다. 즉 1) 맥락장애가 내면화되는 과정을 명료화해주고 2)환경적으로 오는 장애를 보상하거나 대처하는 새로운 상담이나 전략의 제시가 가능하다. 3)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 또는 맥락적 위치에 따라 상담자가 서로 다른 개입 목표나 역할(예: 사회적지지, 체계-수준 변화)을 변별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장애는 보통 부정적인 맥락적 영향을 말하는데, 맥락적 장애는 개념적으로는 별개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보통 유해한 개인 요인(예: 역경적인 학습조건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킴)과 관련된다.

이밖에 진로장애연구의 문제점으로, Swanson 등(1997)은 진로관련 연구 발달을 정리하면서 장애구성요소는 이 방면의 연구결과가 통합되고 여기서 후속연구 가설이 유도될 확고한 이론적 틀이 부족하다는 점과,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는 연구자의 특정한 연구에만 독특한 측정도구로 시행되어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Lent, Brown과 Hackett(2000) 등은 ‘무엇에 대한 장애인가?’를 중요시해서, 장애는 진로진전을 방해하는 것 이므로 이론적, 실질적으로 볼 때 더 구체적인 발달과정과 관련된 장애(예: 진로선택개념화, 선택의 실행, 또는 진로향상 등의 진로에서의 진전 등)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했다. 즉 어떤 장애는 어떤 행동 과정 추구를 제한하지만 오히려 이에 대한 보완으로 다른 선택 추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장애, 누가 만난 장애, 어떤 선택과정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종류의 영향을 받는가가 다르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발달과제에 따라 상당히 다른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연구자는 개방형질문이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발달과제나 불리한, 좌절적인 선택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했는데 이는 장애가 공통적인 속성이고 계속된다고 하는 무조건적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다(Swanson & Tokar, 1991).

국내연구를 보면, 지금까지 진로장애 영역을 분류하고 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척도는 손은령(2001)과 김은영(2002)의 연구가 있다. 손은령(2001)은 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애의 내용과 지각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여자대학생용 진로장애검사 개발하고 그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손은령은 기존의 진로장애연구에 대한 몇 가지 고려 점을 지적했다. 초기연구는 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애를 파악하고 분류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어 점차 인종, 민족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성별차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정집단이 지각하는 진로장애의 특성보다는 점차 집단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어 각 집단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을 알려주는데 그쳤다는 점, 둘째로 진로장애 측정방법에서 측정도구가 적합하지 않거나 장애를 전반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측정대상으로 한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김은영(2002)은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김은영의 연구에서도, 장애의 구성요인이 진로선택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기존연구에서 밝혔지만, 사람들이 지각하는 잠재적인 장애의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진로장애 개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정의나 합의가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손은령의 연구는 여대생에게 초점을 맞추어 남학생에게 실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김은영의 척도에는 장애로 인해 초래되는 정서나 감정에 관한 문항(예: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과 미래의 직장생활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예: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들이 포함되어 실제 진로와 관련된 장애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척도는 막연한 불안감을 초래하는 장애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불안감의 유무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외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내 요인(대인관계나 성격 등)과, 환경적/객관적 요인(부모의 간섭, 나이나 신체적 조건, 경제적조건 등)이 검사 내에 함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장애요인들은 내용이 다르다면 각각 서로 다른 별개의 요인으로 묶여 있는 점이다. 현실적 여건이나 장애는 내용분석을 통해 내용적으로 묶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요인분석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요인을 도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에 관한 것이 의미가 있지 객관적인 상황은 요인 개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 학생들의 진로지도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장애요인의 중요성, 진로장애의 정의, 진로장애연구의 문제점, 그리고 국내의 장애척도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지방대생의 진로지도에 관심을 가지는데, 학생들은

자신이 처해있다고 믿는 부정적인 조건들을 확대해석하여 노력을 하기도 전에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거나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기운이 빠져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본 연구자가 지방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담을 해오면서 여러 번 관찰하고 그 중요성을 절감하는 바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취업전선에 나설 때 자신의 취업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적 그리고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또 실제로 이것들이 진로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면서 실질적인 진로행동을 취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생들이 느끼는 장애가 주로 어떤 것들인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진로장애척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진로장애척도를 남녀 대학생에게 실시하는데 한계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진로장애검사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로장애의 내용이 심리적/개인내적인 것과 환경적/객관적인 여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지방소재 대학생들은 지역적, 사회적편견에 따른 불이익이나 진로장애감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서울소재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지방의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진로장애(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여건)의 종류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장애는 보통 부정적인 맥락적 영향을 말하는데, 맥락적 장애는 개념적으로는 별개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보통 유해한 개인 요인(예: 역경적 학습조건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킴)과 관련된다는 Lent, Brown과 Hackett(2000)의 언급을 참고할 때, 대학생, 특히 지방소재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환경/상황적 여건이 심리적인 진로장애 요인의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번째로, 지각된 상황이 나 환경에서의 장애가 심리적 진로장애 형성에 기여하는가, 그리고 그 구체적 양상은 어떠한가 하며 이러한 양상이 개인의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가를 파악하기 위해 소재지별(지방소재 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 학년, 성별이 다른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

측정도구

진로장애검사

대학생들의 진로모색에 방해가 되는 진로장애 인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먼저 개방식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예비 진로장애검사를 만들고, 예비검사를 지방과 서울의 국립대 남녀학생에게 실시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검사이다.

기타 측정도구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태도와 준비정도를 알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검사로 5개 하위요인 총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정도, 진로문제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가, 직업의

목표와 지향성, 진로선택 문제에 어느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측정한다. 5가지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결정성 .88, 목적성 .75, 확신성 .75, 준비성 .76, 독립성 .75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검사.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차정은(1996)이 개발하고 김아영(1997)이 수정한 검사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 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81-.88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이은경(2001)이 수정한 척도이다. 총 25개 문항이며, 내용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순서대로 .64, .76, .78, .79이다.

조사대상

서울과 지방도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연구자가 제작한 예비 진로장애검사와 기타 검사들(진로태도 성숙도 검사, 일반적 자기효능감 검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검사)을 실시했다. 무응답이 많은 학생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782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다(지방소재 대학생 554명/ 서울소재 대학생 228명, 남자대학생 392명/ 여자대학생 390명).

진로장애검사 제작

예비 진로장애검사를 위한 문항수집

본연구에서는 먼저 예비검사를 만들기 위해

개방식 질문지조사를 실시했다. 예비검사를 위한 질문지조사에서 대학생 70명(남자 47명, 여자 23명)에게 '당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장벽이나 좌절감을 느끼는지 상세히 적어주십시오'라는 질문내용을 주고 진로에 대해 느끼는 장애가 무엇인지 생각나는대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응답지를 검토하여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장애의 내용을 추출하고, 비슷한 내용이나 주제별로 모아서 항목을 정리했다.

예비 진로장애검사를 위한 문항선정

추출된 진로장애항목들에 대해 전문가 2명(심리학 연구방법론전공 교수 1명과 상담심리 전문가/교수 1명)이 문항분석을 하여 내용이 겹치거나 기술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총42개의 예비검사 문항이 선택되었다. 수정된 내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진로장애 문항의 예:

- *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고 우유부단하다(우유부단한 성격).
- * 주위에서 어렵다고 하면 포기하고 싶어진다(포기한다).
- * 내가 원하는 직장이 나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지 궁금하다(맞지 않는다).
- * 생각했던 것과 현실 간에 괴리감이 있다(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 문항의 예:

- * 부모님의 욕심과 주위의 눈이 부담된다(기대).
- * 집안의 사정으로 꿈을 포기한 적이 있다(꿈을 포기해야 하는 집안사정).

- * 진로준비에 인맥이 부족하다(소위 빡이 없다는 것인지, 조연자가 없다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해서 수정).

삭제문항:

- * 잘 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다 (삭제).
- * 미래가 불투명하다(삭제).
- * 내가 선택한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삭제).
- * 현실적인 조건들(앞으로 전망이 있는 일, 남들이 선호하는 일, 보수가 높은 일)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이것이 왜 장애인지 모호함).

응답내용을 보면 ‘좌절감을 느낀다’, ‘막연하다’, ‘막막하다’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구들이 있었는데 이는 장애로 인하여 초래되는 감정상태이므로 장애 자체를 측정하는 문항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해 보였다. 그리고 장애와 그로 인한 느낌이 한 문항에 공존하는 경우 장애는 있으나 느낌이 없거나, 그 반대인 경우의 응답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것에 맞추어 응답을 할지 모르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정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무기력감과 게으름으로 공부가 안되고 걱정만 된다.’는 ‘무기력감과 게으름’으로 고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준비가 필요한데 합격이 될지 미래가 불안하다’는 ‘준비미흡’으로, 또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가 비전이 없고 취업이 잘 안된다고 하여 걱정이다’는 ‘현재 다니고 이는 학과가 비전이 없고 취업에 불리하다’로 단순화시켜 수정했다. 이와 같이 장애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장애 자체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모든 문

항을 정리하여 중복되는 문항들을 줄여 척도를 정리했다. 이후, 본 예비척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진로장벽검사’(김은영, 2002)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적절한 것을 추가하려 했으나 본 척도에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들에 대해서 리커트 척도로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응답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어려움에 비해서 리커트 평정자료의 유용성이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시오.’ 혹은 ‘예-아니오’ 형태보다 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답은 ‘예-아니오’ 둘 중 하나에 표시해 주십시오 라는 형식을 선택했다.

진로장애검사 내용

본연구자가 제작한 예비 진로장애검사와 기타 검사들(진로태도 성숙도 검사, 일반적 자기효능감 검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검사)을 서울과 지방소재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42개의 예비문항을 연구자와 검사제작 전문가가 자세히 검토한 결과 내용을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째, 심리적으로 느끼는 장벽과 둘째, 장애로 작용한다고 학생들이 느끼는 객관적인 상황이나 환경적인 여건들이었다. 개인내적 요인과 맥락적요인을 구분해서 각각의 영향의 정도를 파악함의 이점을 언급한 Lent, Brown과 Hackett(2000)의 지적 외에도 환경내용은 구성요인으로써 심리적 장애문항과 동일하게 요인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두 영역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즉 심리장애 문항만 장애척도에 포함시키고 환경요인은 조사한 결과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42개 문항을 내용적으로 분리하여 심리적문항

(20개)과 객관적상황(19개)으로 나누고 어느 쪽에도 해당이 어려운 내용이 모호한 문항 3개는 삭제하였다.

심리적 장애척도 구성이 가능한 심리적인 문항 20개를 가지고 일단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했다¹⁾. 그리고 현실적 여건을 내용적으로 묶기 위해서는 주성분분석을 실시했다²⁾.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들을 심리측정적인 잠재요인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다만 그것들을 각 학생이 처한 여러 가지의 상황적, 환경적, 여건들 중의 일부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환경여건들을 묶어내기 위하여 심리적 잠재요인(변인에 대한 '원인'으로 가정되는)을 가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축분해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성분분석을 하였다.

결 과

- 1) 요인분석은 상관계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상관계수가 산출될 수 있는 어떤 자료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의미가 있으므로 예/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는 본 진로장애검사에 사용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들이 이분변인자료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MMPI의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들이다.
- 2) 주성분분석은 특수요인(unique factor)을 상정하지 않는 모형에 기초하고, 수학적으로 일반적인 요인분석모형과 매우 다른 모형이다. 이론적으로 주성분분석모형은 요인과 관찰변인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요인분석모형과는 상반된 관계를 가정한다. 따라서 주성분분석은 요인과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에 기초한 요인구조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단순히 유사한 변인들을 묶어 내어 자료를 축약하기 위한 목적에 더 부합하는 분석이다(박광배, 2000).

심리적 진로장애검사의 요인구조

심리적 진로장애검사 구성이 가능한 심리적 문항 20개를 가지고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축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를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유치, 스크리 검사, 누적설명변량백분율, 해석가능성 기준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요인을 추출할 때의 누적설명변량백분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의 수를 4개로 결정하였으며, 요인구조를 회전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직각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하였다. 각 요인에 포함될 문항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요인부하량이 .35 이상인 것으로 하여 이 중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 3개는 탈락시키고 총 17개 문항이 남았다. 표 1을 보면, 요인 1은 직업정보 부족(4문항), 요인 2는 자기진로 이해부족(5문항), 요인 3은 자신감 부족과 성격문제(5문항), 요인 4는 취업의 현실 여건(3문항)이다. 각요인의 신뢰도는 .81, .70, .71, .57 로서 비교적 양호한 결과였다.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의 내용영역

환경적 진로장애여건의 문항들을 소수의 주성분점수로 요약하기 위하여 공통분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13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환경여건이므로 한두명의 특수한 여건을 내용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서 특수한 여건은 제외함). 주성분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유치, 스크리검사, 누적설명변량백분율 기준을 이용했다. 주성분 분

표 1. 심리적 진로장애 검사의 요인구조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분	Cronbach α
1.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782				.669	.81
2.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686				.517	
3. 어느 직종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600				.532	
4. 사회에서 하는 일과 분야를 잘 모른다	.531				.436	
5. 나의적성을 모르겠다		.637			.527	.70
6.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595			.475	
7. 어떤 것이 유망직종인지 모르겠다		.450			.319	
8. 시대 흐름의 변화가 나의 진로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준다		.407			.304	
9. 현실적인 조건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380			.207	
11. 도전정신과 의지가 부족하다			.561		.377	.71
10. 게으르고 무기력감을 느낀다			.543		.336	
12.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530		.313	
13. 준비가 미흡하다			.495		.392	
14. 특별한 재능이 없다			.444		.338	.57
15. 취업의 문이 좁고 경쟁이 치열하다				.645	.459	
16. 사회전반적인 불경기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523	.286	
17. 주위에서 취업이 어렵다고 한다				.473	.239	
초기 고유치	5.003	1.602	1.337	1.138		
누적 설명 변량 백분율	29.431	38.857	46.719	53.415		

석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주성분은 5개가 출할 때의 누적설명변량백분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의 주성분을 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성분의 수를 5개

로 결정하였으며, 주성분구조를 회전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직각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하였다. 각 주성분에 포함될 문항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주성분부하량이 .4 이상인 것으로 하였다. 주성분1은 취업기반부족(4문항), 주성분2는 학벌과 전공(2문항), 주성분3은 나이와 신체조건(3문항), 주성분4는 경비와 집안사정(2문항), 주성분5는

부모와 주변인 문제(2문항)로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요인들은 현실적인 장벽에 관한 내용요인이지만 심리적 요인이 아니므로 앞의 주성분분석 설명에서 밝힌 것과 같은 이유로 신뢰도검증은 필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심리적 진로장애검사에 4개 요인, 17문항과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에 5개 영역, 13문항, 총 9개 영역의 장애점수가 나오

표 2.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의 내용영역

문항	주성분1 취업기반 부족	주성분2 학벌과 전공	주성분3 나이와 신체조건	주성분4 경비와 집안사정	주성분5 부모와 주변인	공통분
1.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662					.484
2. 자격증이 없다	.589					.384
3. 영어점수가 부족하다	.547					.434
4. 취업을 직접적으로 알선해줄 인맥이나 뒷배경이 부족하다	.510					.425
5. 학벌이 모자란다(지방대 출신에 대한 편견)		.736				.577
6.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가 비전이 없고 취업에 불리하다		.724				.555
7. 건강과 체력이 부족하다			.732			.653
8.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신체적인 조건이 나쁘다			.725			.556
9. 나이 때문에 진로 계획과 실행에서 지장을 받을 것이다		.378	.433			.391
10. 진로준비를 하는 동안 필요한 경비마련이 어렵다				.776		.681
11. 집안사정으로 꿈을 포기해야 한다				.707		.633
12. 부모님의 욕심과 주위의 기대가 크다					.755	.609
13. 부모님이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간섭한다					.711	.561
초기 고유치	2.261	1.467	1.130	1.084	1.001	
누적 설명 변량 백분율	17.396	28.682	37.377	45.718	53.416	

게 되었다.

심리적 진로장애검사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도의 관계

심리적 진로장애검사 요인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심리적 진로장애 점수와 진로자기효능감 검사(이은경, 2001), 일반적 자기효능감 검사(김아영, 1997), 및 진로태도성숙도 검사(이기학, 1997) 점수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진로장애검사 점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간 상관계수는 -.022 ~ -.542로 산출되었으며, 진로장애검사 점수와 진로태도성숙도 점수간 상관계수는 -.002 ~ -.552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진로장애검사는 어느정도 구성개념 타당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장애요인 별로 살펴보면, 요인1(직업 정보부족)은 진로효능감의 직업정보, 미래계획

과 상관이 높고 태도성숙도의 결정성, 확신성과 상관이 높다. 요인2(자기진로 이해부족)는 진로효능감의 목표선택, 미래계획과 상관이 높고, 태도성숙도의 결정성과 상관이 높다. 요인3(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 역시 진로효능감의 미래계획과 목표선택, 태도성숙도의 확신성이나 결정성과 상관이 높다. 그리고 요인3은 다른 장애요인들에 비해 일반적 효능감(자기조절, 자신감, 과제난이도선호)과 역상관이 가장 높다. 요인4(취업의 현실여건)는 진로효능감의 미래계획이나 태도성숙도의 확신성과 상관이 있으나 정도가 약하다. 전반적으로 요인 2와 3이 진로효능감이나 태도성숙도와 상관이 높았다.

대학(소재지별), 성별, 학년 간 심리적, 환경적 진로장애 점수의 차이

심리적장애요인과 환경적 장애여건들에서

표 3. 심리적 진로장애검사 점수와 일반적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도 검사 점수 간 상관

	장애_심1	장애_심2	장애_심3	장애_심4	심리장애
자기조절	-.179***	-.211***	-.337***	.096**	-.254***
자신감	-.234***	-.237***	-.419***	-.061	-.348***
과제난이도선호	-.064	-.163***	-.276***	-.132***	-.217***
진로결정 효능감 : 목표선택	-.367***	-.509***	-.410***	-.022	-.490***
진로결정 효능감 : 직업정보	-.417***	-.385***	-.391***	-.083*	-.466***
진로결정 효능감 : 문제해결	-.099**	-.134***	-.242***	-.060	-.191***
진로결정 효능감 : 미래계획	-.396***	-.431***	-.497***	-.209***	-.542***
진로태도성숙 : 결정성	-.358***	-.552***	-.370***	.022	-.479***
진로태도성숙 : 목적성	-.116***	-.212***	-.079*	.041	-.146***
진로태도성숙 : 확신성	-.314***	-.397***	-.463***	-.002	-.443***
진로태도성숙 : 준비성	.021	-.029	-.045	.194***	.019
진로태도성숙 : 독립성	-.138***	-.261***	-.175***	.070	-.203***

표 4. 대학별 진로장애검사의 평균과 차이 검증

	지방소재대학 (n=554)	서울소재대학 (n=228)	평균	표준편차	t
장애_심1	2.04 (1.58)	1.67 (1.57)	1.93	1.59	2.985**
장애_심2	2.34 (1.68)	2.08 (1.64)	2.26	1.67	1.980*
장애_심3	2.72 (1.60)	1.86 (1.55)	2.47	1.63	6.900***
장애_심4	2.45 (.81)	2.12 (1.04)	2.35	.89	4.795***
장애_환1	2.74 (1.15)	2.18 (1.22)	2.58	1.20	5.988***
장애_환2	.67 (.71)	.44 (.59)	.60	.68	4.355***
장애_환3	.58 (.78)	.58 (.78)	.58	.78	-.034
장애_환4	.56 (.65)	.47 (.68)	.53	.66	1.734
장애_환5	.70 (.68)	.81 (.68)	.73	.68	-1.931
심리장애	9.55 (4.32)	7.72 (4.09)	9.02	4.33	5.446***
환경여건	5.25 (2.31)	4.48 (2.26)	5.03	2.32	4.254***

주. * $p < .05$, ** $p < .005$, *** $p < .001$

지방소재 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 간의 평균을 검토한 결과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음에 심리적 진로장애검사와 환경적 여건의 9개 영역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그리고 대학, 남녀, 학년별 진로장애검사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결과를 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소재 대학생이 느끼는 심리적장애 정도는 4요인 모두에서 서울소재 대학생이 느끼는 정도보다 큼을 알 수 있고 특히 요인3(자신감부족)은 차이가 매우 크다. 환경적여건에서는 여건1(취업기반부족), 여건2(학벌과 전공)가 차이가 있다. 표 5에서 남녀별 차이를 보면 심리적 장애는 모든 요인에서 그리고 환경적 여건은 1(취업기반부족)과 5(부모와 주변인문제)에서 여대생이 장애감을 더 크게 느끼를 알 수 있다. 표 6에서 학년별 차이를 보면 저학년일수록 장애감이 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애감 정도가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장애요인은 대학, 남녀, 학년. 모두에서 점수 차이를 보이나, 환경적 장애는 주로 여건 1과 2, 또는 5에서 차이를 보인다.

반면 대학(지방소재 대학/서울소재 대학), 성별, 학년을 요인으로 설정하고 중다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요인들간 상호작용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대학에 따라 남녀차이가 없으며, 성별에 따른 대학차이도 없었다(결과표는 제시하지 않음). 그러나 대학교와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결과 심리적장애 4(취업의 현실여건)에서만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주효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방소재 대학생은 1학년(2.62)과 4학년(2.35)의 심리적장애 4의 평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소재 대학생은 1학년(2.56)과 3학년(1.91)의 평균이 다른 것

표 5. 남녀별 진로장애검사의 평균차이 검증

	남(n=392)	여(n=390)	t
장애_심1	1.66 (1.57)	2.20 (1.56)	-4.813***
장애_심2	2.13 (1.73)	2.39 (1.61)	-2.195*
장애_심3	2.15 (1.61)	2.78 (1.59)	-5.525***
장애_심4	2.23 (.96)	2.48 (.81)	-3.860***
장애_환1	2.31 (1.26)	2.84 (1.08)	-6.272***
장애_환2	.60 (.68)	.61 (.68)	-.116
장애_환3	.55 (.78)	.61 (.78)	-1.109
장애_환4	.50 (.64)	.57 (.68)	-1.408
장애_환5	.65 (.66)	.82 (.69)	-3.362***
심리장애	8.18 (4.49)	9.86 (4.00)	-5.516***
환경여건	4.62 (2.39)	5.44 (2.18)	-5.023***

주. * $p < .05$, ** $p < .005$, *** $p < .001$

표 6. 학년별 진로장애검사의 평균차이 검증

	1학년(n=133)	2학년(n=140)	3학년(n=262)	4학년(n=247)	F
장애_심1	2.41 (1.54)a	1.97 (1.60)ab	1.87 (1.54)b	1.71 (1.61)b	5.827***
장애_심2	2.58 (1.59)a	2.42 (1.76)ab	2.24 (1.66)ab	2.03 (1.65)b	3.615*
장애_심3	2.68 (1.55)ab	2.72 (1.65)a	2.40 (1.52)ab	2.28 (1.74)b	3.122*
장애_심4	2.61 (.67)a	2.43 (.84)ab	2.23 (.99)b	2.31 (.89)b	5.966***
장애_환1	2.99 (1.12)a	2.76 (1.17)ab	2.57 (1.16)b	2.26 (1.20)c	12.899***
장애_환2	.75 (.71)a	.71 (.76)a	.61 (.67)a	.45 (.59)b	7.987***
장애_환3	.64 (.81)	.46 (.77)	.64 (.79)	.56 (.75)	2.022
장애_환4	.59 (.64)	.49 (.64)	.57 (.69)	.49 (.66)	1.063
장애_환5	.71 (.74)	.74 (.67)	.73 (.64)	.75 (.69)	.100
심리장애	10.27 (4.03)a	9.54 (4.53)ab	8.74 (4.13)b	8.33 (4.42)b	6.985***
환경여건	5.68 (2.23)a	5.16 (2.28)a	5.12 (2.29)a	4.50 (2.33)b	8.362***

주. * $p < .05$, ** $p < .005$, *** $p < .001$

abc 같은 문자가 있는 집단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을 나타냄.

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진로여건이 심리적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과 두 대학간(소재지별) 차이

객관적/환경적 진로장애여건이 심리적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심리적 진로장애 각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결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적 진로장애 1(직업정보부족)에는 환경적 진로여건 1($\beta=.348, p<.001$), 환

경적 진로여건 2($\beta=.104, p<.01$), 환경적 진로여건 4($\beta=.104, p<.01$), 환경적 진로여건 5($\beta=.067,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진로장애 2(자기진로 이해부족)에는 환경적 진로여건 1($\beta=.282, p<.001$), 2($\beta=.154, p<.001$), 3($\beta=.108, p<.01$), 5($\beta=.090,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진로장애 3(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에는 환경적 진로여건 1($\beta=.398, p<.001$), 2($\beta=.151, p<.001$), 3($\beta=.157, p<.001$), 4($\beta=.115,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표 7. 환경적 진로여건이 심리적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진로장애 1	심리적 진로장애 2	심리적 진로장애 3	심리적 진로장애 4
환경적 진로여건 1	.348***	.282***	.398***	.376***
환경적 진로여건 2	.104**	.154***	.151***	.024
환경적 진로여건3	.051	.108**	.157***	.012
환경적 진로여건 4	.104**	.051	.115***	.011
환경적 진로여건 5	.067*	.090**	.048	.030
R ²	.202***	.181***	.311***	.154***

주. 표안의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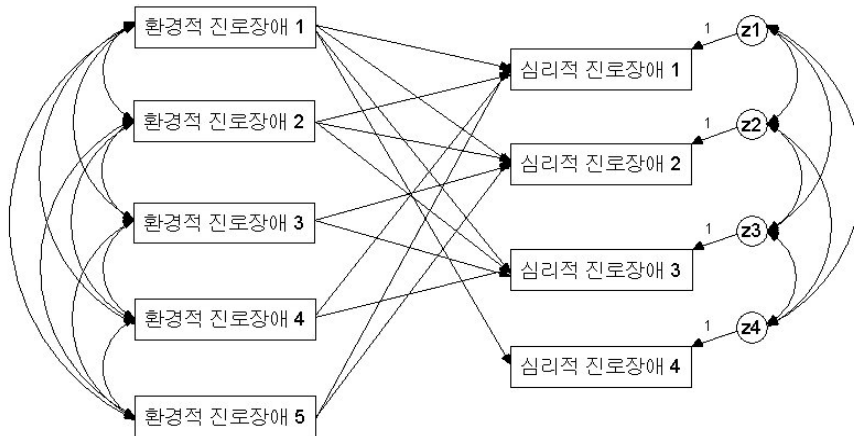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장애 경로모형

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진로장애 4(취업의 현실여건)에는 환경적 진로여건 1($\beta=.376, p<.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양한 환경적 진로여건은 대학생의 심리적 진로장애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진로장애점수의 평균차이 만이 아니라, 객관적/환경적 여건 내용들이 심리적인 장애요

인들에 영향을 주는 관계양상 혹은 효과패턴에서도 지방소재 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 간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환경적 진로여건이 심리적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소재 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에서 서로 같은지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경로모형을 구성한 후,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기본모형과 경로계수 동일화 제약모형, 부분동일화 제약모형의 χ^2

모형	χ^2	df	$\Delta\chi^2$	Δdf	
Model0	기본모형	21.267	14	-	-
Model1	완전 동일화 제약모형	44.663*	27	23.396*	13
Model2	환경적 진로여건1 -> 심리적 진로장애1	21.277	15	0.010	1
Model3	환경적 진로여건1 -> 심리적 진로장애2	21.293	15	0.026	1
Model4	환경적 진로여건1 -> 심리적 진로장애3	28.861	15	7.594**	1
Model5	환경적 진로여건1 -> 심리적 진로장애4	21.865	15	0.598	1
Model6	환경적 진로여건2 -> 심리적 진로장애1	21.792	15	0.525	1
Model7	환경적 진로여건2 -> 심리적 진로장애2	25.759	15	4.492*	1
Model8	환경적 진로여건2 -> 심리적 진로장애3	21.342	15	0.075	1
Model9	환경적 진로여건3 -> 심리적 진로장애3	21.349	15	0.082	1
Model10	환경적 진로여건3 -> 심리적 진로장애3	23.542	15	2.275	1
Model11	환경적 진로여건4 -> 심리적 진로장애1	22.182	15	0.915	1
Model12	환경적 진로여건4 -> 심리적 진로장애3	25.131	15	3.864*	1
Model13	환경적 진로여건5 -> 심리적 진로장애1	21.366	15	0.099	1
Model14	환경적 진로여건5 -> 심리적 진로장애2	21.272	15	0.005	1
Model15	부분동일화 제약 모형	26.945	24	5.678	10

주. $\Delta\chi^2$ 는 Model0과 해당모형의 χ^2 차이이고, Δdf 는 Model 0과 해당모형의 df 차이.

Model 15는 완전 동일화 제약모형에서 Model4, model7, model 12의 경로들만 동일화 제약을 하지 않은 모형임.

환경적 진로여건 : 1은 취업기반부족, 2는 학벌과 전공, 3은 나이와 신체조건, 4는 경비와 집안사정, 5는 부모와 주변인 문제.

심리적 장애요인 : 1은 직업정보 부족, 2는 자기진로 이해부족, 3은 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 4는 취업의 현실여건.

대학교간 경로계수의 차이검증은 대학교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기본모형)과 대학교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동일화 제약 모형)간 비교로 이루어진다(홍세희, 2001). 기본 모형과 동일화 제약 모형의 χ^2 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두 모형에 대한 χ^2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23.396$, $df=13$, $p<.05$). 즉, 대학교에 따라 경로계수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로계수가 두 대학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 9와 같이 모든 경로들에 대하여 하나의 경로에만 동일화 제약을 한 후 χ^2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환경적 진로여건 1이 심리적 진로장애 3에 미치는 영향, 환경

적 진로여건 2가 심리적 진로장애 2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진로장애 4가 심리적 진로장애 3에 미치는 영향이 대학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 대학별 경로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방식 질문지를 통해 예비진로장애검사를 만들고 이를 지방소재 대학생과 서울소재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하고 내용을 분석했다. 내용은 심리적 문항과 환경적/객관적 문항으로 나누어 심리적 문항은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했고, 환경적/객관적 문항은 주성분분석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진로장애검

표 9. 대학별 경로계수

경로	지방소재대학		서울소재대학	
	경로계수	t	경로계수	t
환경적 진로여건1 -> 심리적 진로장애1	.471(.345)	10.447***	.471(.363)	10.447***
환경적 진로여건1 -> 심리적 진로장애2	.411(.284)	8.640***	.411(.305)	8.640***
환경적 진로여건1 -> 심리적 진로장애3	.595(.430)	11.870***	.360(.288)	5.194***
환경적 진로여건1 -> 심리적 진로장애4	.271(.384)	11.079***	.271(.324)	11.079***
환경적 진로여건2 -> 심리적 진로장애1	.251(.113)	3.242***	.251(.093)	3.242***
환경적 진로여건2 -> 심리적 진로장애2	.482(.204)	5.393***	.071(.025)	.436
환경적 진로여건2 -> 심리적 진로장애3	.310(.138)	4.265***	.310(.119)	4.265***
환경적 진로여건3 -> 심리적 진로장애2	.218(.101)	3.456***	.218(.104)	3.456***
환경적 진로여건3 -> 심리적 진로장애3	.332(.162)	5.502***	.332(.170)	5.502***
환경적 진로여건4 -> 심리적 진로장애1	.212(.088)	2.963**	.212(.091)	2.963**
환경적 진로여건4 -> 심리적 진로장애3	.135(.055)	1.620	.516(.230)	4.200***
환경적 진로여건5 -> 심리적 진로장애1	.128(.055)	1.733	.128(.055)	1.733
환경적 진로여건5 -> 심리적 진로장애2	.181(.073)	2.391*	.181(.075)	2.391*

주. 괄호안의 계수는 표준화계수임.

사는 기존의 척도와는 달리 심리적 장애요인들로만 구성되었고 객관적/환경적장애 문항들은 객관적/상황적 장애여건으로 제시되었다. 심리적 장애요인은 직업정보 부족(4문항), 자기진로 이해부족(5문항), 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5문항), 취업의 현실여건(3문항)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고, 환경적 장애여건은 취업기반부족(4문항), 학벌과 전공(2문항), 나이와 신체조건(3문항), 경비와 집안사정(2문항), 부모와 주변인 문제(2문항) 등 5개 내용으로 묶였다. 이 결과를 김은영의 검사와 비교해보면 본연구자의 심리적 장애검사에 있는 4개 요인은 김은영의 검사에도 있다. 그러나 본연구에는 김은영 검사의 대인관계어려움과 흥미부족 요인이 없다. 반면 김은영의 검사에는 학벌과 학과문제 내용이 없고 부정적 성격요인(우유부단)과 취업기반부족(좋지 않은 성적)이 한 요인에 묶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여건3에 나이와 신체조건이 함께 묶였으나 김은영의 연구에서는 요인6과 요인7로서 따로 묶여 있다.

또한 심리적 진로장애검사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장애검사 점수와 진로자기효능감 검사, 일반적자기효능감 검사, 및 진로태도성숙도 검사 점수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점수 간 상관계수는 $-.008 \sim -.552$ 로 산출되었다. 심리적 장애요인 별로 살펴보면(표 6), 요인1(직업정보부족)은 진로효능감의 직업정보, 미래계획과 상관이 높고 성숙도의 결정성, 확신성과 상관이 높다. 직업정보가 부족하면 미래계획과 결정이 어려우며, 심리적 장애 1은 직업정보에 기초한 효능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2(자기진로 이해부족)는 진로효능감의 목표선택, 미래계획과 상관이 높고, 진로태도성숙도의 결정성과 상관이 높아서 요

인2의 점수가 높으면 미래계획이나 목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요인3(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 역시 미래계획과 목표선택, 성숙의 확신성이나 결정성과 상관이 높아서 이런 경우는 미래계획이나 목표선택에서 결정이 어렵고 확신이 부족하다. 요인3은 다른 장애요인들에 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자기조절, 자신감, 과제난이도선호)과 역상관이 가장 높아서 일반적인 자신감이나 자기조절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로효능감의 미래계획과 목표선택, 태도성숙의 확신성이나 결정성과 상관이 높아서 이 역시 미래계획과 결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요인4(취업의 어려움)는 진로효능감의 미래계획이나 태도성숙의 준비성과 상관이 있으나 정도가 약하다. 따라서 요인4는 진로효능감이나 진로태도성숙과 관계없이 심리장애척도 상에 고유한 요인인 듯 보인다. 전반적으로 요인 2와 3이 진로효능감이나 태도성숙도와 상관이 높음으로써 자기진로 이해부족이나 자신감 없음이 효능감이나 태도미성숙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진로장애 점수 결과를 보면 예상했던바와 같이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소재 대학생보다 진로장애를 더 크게 느끼고 특히 심리적요인 전부에서 그러하며 요인3(자신감부족과 성격)이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여건에서는 나이나 신체조건, 경비와 집안사정, 부모와 주변인 문제 등은 차이가 없고 취업기반이나 학벌의 부족에서 지방소재 대학생이 장애감을 더 높게 느낀다. 남녀별 차이나 학년이 낮을수록 진로장애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이다(김은영, 2002; 손은령, 김계현, 2002). 지역이나 학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던 환경요인의 '부모와

주변인 문제'는 남녀에서 차이를 보여 여대생이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이점은 진로선택이나 준비에서 여성이 부모나 주변인의 영향에서 더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저학년에 비해 대부분의 장애감이 줄어들지만 유독 '부모와 주변인 문제' 점수는 전혀 변동이 없는 점도 흥미롭다. 아마도 부모나 주변인의 간섭은 개인적인 취업준비도와 관계없이 학생들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인 듯하다.

전반적으로 환경적 장애여건은 심리적 장애요인에 비해 진로효능감이나 진로태도성숙과 관계가 약하고, 객관적인 비심리적인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기반이나 연령, 학벌의 부족 등 환경적/객관적 여건은 심리적으로 못지않게 대학생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는 심리적 장애감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듯하여 환경적 장애여건이 심리적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심리적 진로장애 요인 각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7. 참조), 취업기반부족, 학벌과 전공, 경비와 집안사정, 부모와 주변인 문제 등 4개 환경적 여건은 심리적 진로장애 1(직업정보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취업기반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 부모와 주변인 문제 등 4개 환경적 여건은 심리적 진로장애 2(자기진로 이해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진로장애 3(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에는 취업기반부족, 학벌과 전공, 나이와 신체조건, 경비와 집안사정, 등 여건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진로장애 4(취업의 현실여건)에는 취업기반부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심리적으로 1, 2, 3, 4에서 모두 환경적여건 1(취업기반부족)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험의 부족이나 자격증, 취업을 도와줄 배경의 부족에서 가장 큰 좌절감과 장벽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환경적/객관적 장애여건은 단순히 환경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이나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악순환 될 수도 있어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조건들을 미리 갖추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된 환경/상황적 여건 요인들이 심리적인 장애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지방소재 대학생들과 서울소재 대학생들 간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시사되어 경로모형을 구성한 후,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8. 참조), 환경적 진로장애여건 1(취업기반부족)이 심리적 진로장애 3(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진로장애 2(학벌과 전공)가 심리적 진로장애 2(자기진로 이해부족)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진로장애 4(경비와 집안사정)가 심리적 진로장애 3(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학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를 참조하면, 환경적 장애여건 1(취업기반부족)이 심리적 진로장애 3(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두 대학 모두에서 의미가 있으나 지방소재 대학에서 더 크고, 환경적 장애여건 2(학벌과 전공)가 심리적 진로장애 2(자기진로 이해부족)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소재 대학에서만 의미가 있다. 반면 환경적 장애여건 4(경비와 집안사정)가 심리적 진로장애 3(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소재 대학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시골출신이 많은 지방소재 대학에 비해 여건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서울

소재 대학생이 경비와 집안사정 등 여건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무력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면에서는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서, 이 점은 타인과의 비교나 상대적인 결핍감, 또는 자신이 노력해도 상황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애척도에 심리문항과 환경요인을 한꺼번에 포함시킨 국내의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는 달리 심리적 문항만을 장애검사에 포함시켰으며, 객관적/환경적 여건은 따로 내용을 구성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만든 기존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요인분석은 원래 심리적구인으로 잠재적요인에 따라 묶어야 하는데, 현실적여건은 심리적요인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요인을 묶는 일을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또한 반응이 유사하거나 문항에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내용의 동질성과 상관없이 같이 묶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장애척도는 심리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현실적여건은 문항이나 내용 별로 보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 이점은 개인내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을 구분해서 각각의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를 권유한 Lent, Brown과 Hackett(2000) 등의 언급과도 맥을 같이 한다. 둘째, 기존척도는 샘플이 달라지면 요인구조가 달라질 위험이 있다. 우울척도의 예를 들어 보면, 우울한 사람은 식욕이 떨어지거나 잠을 못자거나 공통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지만 진로장애요인에서 현실적인 여건은 사람에 따라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어서 이것들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진로장애요인에 대해 사전이론이 강력

하지 않은 점 때문에 요인이 깨끗하게 묶이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기존연구처럼 심리와 환경을 동시에 포함시키면 요인구조가 더욱 복잡하고 개념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애검사 내용을 심리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순수한 심리적구인과 환경적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애의 종류와 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한 점이 있다. 앞으로는 연구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두 개 검사 중 어느 하나 만을 사용할 수 있고, 타 진로관련 변인들과 작용하는 각각의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진로상담 장면에서도 학생들이 느끼는 장애의 종류를 환경이나 심리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구체화할 수 있어서 개인의 문제에 따라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다룰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취업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지방소재 대학생의 장애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장애감의 극복 못지 않게 미리미리 취업기반을 다지도록 지도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피험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서울소재 대학 1개와 지방소재 대학 1개, 특히 국립대생 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심리적 진로장애 요인에서 각 요인의 신뢰도는 .81, .70, .71, .57로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요인 4(.57)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요인 4의 문항 수가 적기 때문이거나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가 약해서 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요인4는 취업현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자신의 개인문제와 관련된 앞의 3요인과는 내용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서 직접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불안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는 보다 걱정을 늘리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요인4의 신뢰도가 낮은 점은 이러한 개인의 조건 차이(예: 대처능력)에 일부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후 연구에서 심리적 진로장애검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환경적 여건이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이 주관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경제상황이나 취업기반 등에 관한 주관적 지각과 더불어 객관적인 지표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을듯하다. 이런 방법은 객관적 상황과 심리적 장애의 관련성을 좀 더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광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0). 2000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11, 광운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봉환 (2004). 진로탐색프로그램의 운영(I). 2004년도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아영 (1997). 자기효능감 및 하위척도들의 학교별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미간행본.
- 김은영 (2002).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4(1), 219-240.
- 박광배 (2000). 다변량분석, 학지사.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김계현(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21-139.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의 분석. 2001년도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교재, 임상심리학회.
- Astin, H. S. (1984). The meaning of work in woman's lives: A sociopsychological 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 117-126.
- Gordon, V. N. (1981). The undecided studen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 Harmon, L. W. (1977).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E. Rawling & D. Carter (Eds.), *Psychotherapy for women*(pp.81-106). Springfield, IL: Thoma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 45, 79-12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uzzo, D. A.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319-322.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4), 239-248.
- McWhirter, E. H & Luzzo, D. A. (1996, August). *Examining perceived barriers, career interest-aspiration and aspiration-major congruence*.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McWhir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 McWhirter, E. H., Hackett, G., & Bandalos, D. L. (1998). A causal model of the educational plans and career expectations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66-181.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50.
- Swanson, J. L., & Tokar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Tien, H. S. (1998, August). *Development initial validation of Chinese Career Barriers Inventor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Vonderacek, F. W., Lerner, R. M. & Schulenberg, J. E. (1986). *Career development: A life-span developmental approach*. Hillsdale, NJ: Erlbaum.
- 원 고 접 수 일 : 2007. 9. 10
수정원고접수일 : 2007. 10. 31
게 재 결 정 일 : 2007. 11. 20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Objective/Environmental Career Conditions in University Students' Career Barriers

Soo-hyun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the construct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of students, especially focusing on provincial university student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barrier inventory, the barrier content was divided into psychological and objective/environmental parts. Items for barrier content were extracted through open questions, and after investigating the content, principal axis factoring analysis was completed for psychological career barrier items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completed for objective/environmental career conditions. In result, four factors and 17 items for psychological barrier content, and five factors and 13 items for objective/environmental career conditions were defined. Provincial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d more barriers in most of psychological barrier contents in comparison to students in Seou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mpleted for four psychological barrier factor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bjective/environmental career conditions on psychological barriers. The effect of environmental career conditions on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was proved. Because these results indicated difference between Seoul and provincial universities, a path model was constructed and multi-group analysis was completed. Finally, the usefulness of this newly developed psychological career barrier scale, the impact of objective/environmental career conditions on psychological barriers, and the implications about career counseling for provincial university students we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bjective/environmental career conditions